메트로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고수익 미끼 '사기' 서민 '피눈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 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앞을 면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김형민기자 hjk@metroseoul.co.kr

지난해 LIG 이어 올해 동양그룹 5만명 1조5000억 피해
최근 우리은행도 도마에 … "당국 사후약방문 탓" 지적

집중진단 수술대 오른 금융

[글 싣는 순서]
1.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2. 국민은행, 리딩뱅크 추락하나
3.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금융공학'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금융 산업의 상품 구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 상품에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원금까지 다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금융 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9000여 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한 명당 평균 3180만원을 투자해 고스란히 손실을 낸 위기에 처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도 상태에 직면한 LIG그룹은 기업어음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가 8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기 형의로 소송이 걸려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1년 넘는 소송 끝에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 보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부자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함께 분식회계, 신용등급 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암자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특정 금전신탁 상품이 '제2의 동양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우리은행은 개인투자자 1600여 명에게 특금 1900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부당 영업 행위를 했다. 그러나 사업이 인허가 비리로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의 3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 금융 당국은 사후약방문식 의 미진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2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 검사에서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까지 포착했는데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파이시티로 문제시된 우리은행의 신탁 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금감원이 발 빠른 대처를 했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특별 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은행 전반에 대해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성에 금융 당국은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긴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 금융사만 보관해오던 투자권유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개인투자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국가보조금 보는 사람이 임자?

1700억원 부당수급 유용한 3349명 적발 127명 구속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여 3349명을 입건했다. 1700억원가량 부정수급액 중 복지분야 비리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이들 중 32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리 혐의가 심한 127명은 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국가보조금 지원 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휴일 열린 예결위 휴일 뺏긴 공무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라도·홍도·이어도 포함

정부, 62년 만에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중·일 과도한 조치 아니라는데 공감"

우리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KADIZ의 조정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와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 질서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 기간을 둬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 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며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혀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예쁜 고사리손 8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넣은 뒤 구세군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3선 도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8일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002~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장을 역임한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천을 발전시켜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진정보다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전 시장은 "현재 인천시 부채가 13조여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 행정·기업의 비즈니스와 국제적 감각이 있는 리더십을 가진다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재도 과학수사"

안전보건공단이 5일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재해 원인 규명 및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산업 현장의 화재·폭발·누출·붕괴 등의 사고로 1846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재해자가 63명이 증가하고, 이 중 사망자는 5명이 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 현장 화재·폭발·누출·붕괴 등의 중대 산업사고에 대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약을 조합, 국내 재해 예방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도 법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수 노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安 "지방선거 최선 다해 참여"

새정치 추진위 위원장 박효군 전장관 등 선임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박효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이계안 전 의원 등을 선임했다.

박 전 장관은 1999~200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거쳐 2003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과학자다. 2004~2008년 인천대 총장, 2008~2010년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를 거쳐 지난해부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장현 이사장은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지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새정치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인 출신의 이계안 전 의원은 사단법인 2.1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 신당'의 전남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훌륭한 인재를 공개적으로 모시겠다.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도 하겠다"며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신당 창당을 위한 인재 영입 의지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알림

스마트시대 이끌 기자, 노크를!

메트로신문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국내 최대의 무료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이 2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2주년을 앞두고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2의 창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약을 함께할 패기 넘치는 젊은 지성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 형태	인원	응시 자격
수습	0명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2.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남자는 군필자) 3. 석사 이상 학위자는 가점 부여
경력(취재)	00명	1. 일간지 또는 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 취재 3년 이상 경력자 2. 산업 및 금융 분야 취재 경력자 우대

2. 전형 방법
①1단계 서류전형(공통)
②2단계 필기(수습기자 응시자에 한함)
③3단계 면접(공통)

3. 지원 기간
① 원서 접수 2013년 11월 25일~12월 10일
② 필기 시험 12월 15일 오전 10시 본사 강당
③ 면접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①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②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수습기자에 한함)
③ 경력기술서 및 기명 기사 2건 이상(경력기자에 한함)

5. 접수 방법
① e메일: recruit@metroseoul.co.kr
우편 접수: 서울시 중구 신문로2가 1-141번지 주)메트로신문사 인사담당자앞
② 문의: (02)721-9813(인사담당자)

metro

논술, 어쩌라는 겁니까?

대학 입시 폐지·축소한다더니 내년부터 고교 정규과목화

Issue & View

교육부 '갈지자' 행보 '빈축'

/장다희기자 yahe@metroseoul.co.kr

'논술'과 관련된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에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실시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상위 40개 대학에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의 연장선으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학들도 이에 발맞춰 서울대가 2015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논술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대학 논술 폐지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고교 논술 정규과목화' 정책을 발표해 교육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비판적 글쓰기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논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교 일선에서는 이번 논술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자부지 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교 교사는 "논술 과목을 가르칠 인적자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시켰다.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논술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동 신학사 소장도 "과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논술을 준비했지만 2015학년도부터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고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축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술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현실이 너무 대학 입시 위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두스 관계자는 "논술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넓은 의미로는 긍정적"이라며 "교육과정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대학 입시와 연관 짓는 게 잘못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번호표 등장한 대입박람회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정시모집 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한 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몸살앓는 동천

해마다 200t 수거 "무단투기 심각한 수준"

부산의 대표 도심 하천인 동천이 매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동천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양이 약 190t이라고 8일 밝혔다.

쓰레기는 201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90t과 210t으로 집계되는 등 그 양이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수백t의 쓰레기가 유입되자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해수 통수'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부산시는 2010년 153억원을 들여 동천에 바닷물 5만t을 매일 끌어와 통수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물이 고여 흐름이 없던 곳에 바닷물이 투입돼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과학적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유입되는 쓰레기가 줄지 않자 더는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 공무원들은 동천 오염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감시시설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쓰레기 유입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분리돼 처리되는 '분류식 오수관' 설치 사업 진행이 미비한 탓이다. 현재의 '합류식 시스템'으로는 비만 오면 하수도의 쓰레기가 하천으로 넘칠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류식 공사가 이미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설 설치 때까지 오염을 내버려두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여름에는 침대가 떠내려오는 등 하수도에 통한 부유물이라고 볼 수 없는 '몰상식한' 대형 생활쓰레기마저 발견돼 무단 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신암촌 건물 옥상에 햇볕 발전소 한국고 신도로의 조단 취락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신암촌의 한 공장 건물 옥상에 설치된 햇볕 발전소. 축구장 3개 면적에 태양광 모듈 5600장을 깔아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연합뉴스

부산웨스틴조선호텔 '크리스마스 투나잇' 프로모션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 예약 고객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투나잇'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에서 2박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객실 타입 및 방향에 따라 43만5000~65만원(세금·봉사료 별도)으로 시즌 패키지 대비 최소 6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이다.

객실 내에 크리스마스에 남만을 더해줄 와인, 과일, 치즈 등이 제공되고, 국내 최초의 아이리쉬 펍 오킨스에서 대표 메뉴 '피쉬&칩스와 기네스 파인트 2잔'을 즐길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간단한 안주와 칵테일, 맥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와 조각 케이크, 쿠키, 샌드위치, 과일 등을 즐길 수 있는 데이 타임 스낵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051-749-7001

화요공감무대 발표자 모집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서인화)은 명인·명무 및 신진 예술인에게 다양한 무대 기회를 제공코자 2014년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발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지역 문화 및 한국 음악·무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busan.gugak.or.kr) 참조. 문의: 051)811-0034

북구 구포동의 한 현황도로가 파헤쳐진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손종국

부산 곳곳 '현황도로 갈등'

아스팔트 파헤쳐진 채 수개월째 방치 쇠말뚝 박고 담 쌓아 통행 막고
땅소유자·지자체 '대립' "소유관계 미리 정리해 주민 불편 등 줄여야"

부산에서 '현황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잇따라 생겨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황도로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소유주가 개인인 도로를 말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구포동의 한 현황도로가 아스팔트가 파헤쳐진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땅 소유주 A씨가 폭 8m 도로 중 가장자리 1m를 제외하고 중앙 비틀 등에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버린 것이다.

현재 도로는 흉물스럽게 흙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깨진 아스팔트 더미가 도로 3분의 1가량을 막고 있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힘들어 불편을 겪고 있다.

북구가 지난 7월 현황도로로 사용돼온 땅을 매입해 폭 8m, 왕복 2차선도로 64m를 개설했지만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북구는 예산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나머지 60m 도로개설사업 예산 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A씨 땅 면적은 317㎡로 공시지가상 추정 보상가는 2억원 남짓이라고 북구는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A씨 땅은 3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산이 책정되면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구청을 상대로 한 토지명도 소송에서 이긴 아들이 아버지가 사하구 신평동의 현황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주민 통행을 차단했고 지난 10월에도 해운대구 중동에서 50년 이상 현황도로로 쓰인 땅에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담을 쌓아 통행을 막는 등 현황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오랜 기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돼온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가 갈등이 불거지는 현황도로 소유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소송이나 주민 불편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현황도로가 산재해 있고 지적 측량과 매입 보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황 파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교통수단 '두리발' 확대

부산시는 중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 교통수단 '두리발' 차량을 7일부터 17대 증차해 모두 117대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두리발은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부산시는 2006년 10월 10대 운행을 시작해 매년 차량 대수를 늘려왔다.

두리발 이용 통계를 보면 1·2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이 전체 이용자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별로는 병원 이용이 28.58%, 통근·통학이 11.5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바우처제 장애인용 장애인 콜택시를 1290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두리발 증차로 장애인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리발의 이용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35% 정도며 두리발을 이용하려면 하루 전에 예약(051-466-2280)하면 된다. 당일 두리발이 필요한 사람은 즉시콜(051-200-2046)로 신청하면 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박람회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0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루에 4~6시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6개 그룹 11개 계열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기업 등 모두 74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이날 5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보장되고 복리후생 등에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다. 이에 따라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여성, 장년층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전일제 일자리 희망 구직자를 위해 7개사(35명 구인)가 전일제관 부스를 별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에게 진로·취업 역량을 지도하는 취업센프 진단, 이미지 메이킹, 취업 메이크업, 이력서 면접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청년작가 공모전 시상식 지난 6일 오후 4시 한슬갤러리에서 열린 '제5회 부산시 원혜관 청년작가 공모전 최종 수상작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정효서(오른쪽) 작가는 자연을 배경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유현익(왼쪽) 작가는 도회와 문자의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표출된 공간성을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개천 흐르는 '예술 거리' 서면

도시철도 2호선~동해남부선 철길 550m 구간 설치··야경 '황홀'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서면의 보행로 뱐복판에 실개천이 조성돼 경관 조명과 어우러지며 이색 물거리를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답답한 도심의 휴식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7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세 갈래로 흐르는 실개천은 폭 0.6~3.7m 규모로 부전동 도시철도 2호선에서 범전동 동해남부선 철길까지 550m 구간 서면문화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구는 노숙자가 많고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이곳을 보행자 중심의 예술이 있는 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2011년부터 67억원을 투입,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조성공사를 벌였다.

약 2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9월 말 완공되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이색 물거리가 탄생했다.

특히 이 실개천을 만든 곳은 부전천이 흐르던 곳이어서 옛 추억도 되새길 수 있다.

현재 가장 긴 실개천이 길이 232m 폭 0.6m에 불과하지만 조명등 200개가 개천 바닥에 일알이 박혀 밤 분위기를 황홀하게 해주고 있다.

또 길이 64m 폭 3.7m인 동해남부선 쪽의 실개천에는 화려한 분수시설 두 개가 양쪽에 설치돼 볼거리가 됐다.

구는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 음악 줄 마술공연팀 등을 초청, 다채로운 거리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개천 사이에 스피커를 설치해 계절과 어울리는 음악이 나오는 음악과 실개천이 어우러지는 거리로 만들 예정"이라면서 "서면 문화의 으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동의 재즈무대 열린다

'리더스폴 릴레이 콘서트' 20일 LIG아트홀서

LIG문화재단은 오는 20일 LIG아트홀에서 '리더스폴 2013'에 선정된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리더스폴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릴레이 콘서트 부산의 첫 무대는 프렐류드의 고희안 최진배 한윤범, 리차드 로가 기존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솔리스트의 감춘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21일에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섬세한 감성을 표현해내며 2년 연속 보컬 부문에 선정된 써니 킴이 여성 음악가들의 곡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22일에는 독보적 기타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부산 출신의 SAZA 최우준이 어쿠스틱 사운드의 매력을 가득 담아낸 따뜻한 음악들을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

지난 7년간 서울에서만 열렸던 리더스폴 콘서트가 이번에는 부산으로 확장돼 부산, 경남 음악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44-3922

/정혁군기자 jhk@metroseoul.co.kr

"나이팅게일 정신 본받겠습니다" 7일 오전 신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아파트값 3개월째 상승

작년 중반 상승 추세가 꺾인 부산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3개월째 반등했다.

8일 KB부동산 알리지(www.kbreess.com)에 따르면 11월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산 아파트 시장은 2011년 분양열풍을 일으키며 지방 아파트 시장을 선도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며 올해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9월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해운대구의 아파트값도 11월에 0.04% 올라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락 추세로 접어든 부산의 집값이 반등한 건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 이점이 생긴 데다 올해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안대교 1만6000개 LED 반짝' 지난 1일 점등식을 갖고 1만6000여 개의 풀러 LED가 달린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 /정하균기자 ha@

학교수 늘었지만 학생수 감소

지난 1년 사이 부산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20곳 늘었지만, 전체 학생 수는 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시교육청이 발간한 '2013년 부산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수는 총 1018곳이다.

이는 지난해 998곳보다 20곳(1.9%)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학교 수는 증가했지만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전체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전체 학생 수는 44만76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703명(4%) 감소했다. /뉴시스

희망 북구 만들기 선포식

부산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1교육장에서 2013년 '희망 북구 만들기'를 위한 생명사랑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 관내 유관기관 대표, 실무자 및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51)334-3200

대리로 공동주차장 개장

대리로 및 쌍드빈대로 주변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오는 20일부터 대리로 공동주차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장으로 연제구 주택가 주민들의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저려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이 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심할수가 따면서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부채=자본 3배' 재무불량 상장사 300곳

금융위기 이후 최고 …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장사 300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280%에 육박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501개 비금융 상장사 중 부채비율 최상위 300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279.2%로 1년 전보다 3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6월 말의 259.3%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 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위험함을 뜻한다.

이들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역시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 차상위 300개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올해 6월 말 127.4%로 2009년 6월 말의 129.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9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는 기업의 이자 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에서 한층 두드러졌다.

1501개 비금융 상장사 전체의 이자보상비율은 2007년 상반기 292.8%까지 추락했다가 올해 상반기 425.8%로 회복됐다.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LG화학 등 상위 5개사를 빼면 265.1%에서 245.0%로 오히려 낮아진다.

또 이자보상비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좀비 상태에 가까운 기업의 비중은 2010년 상반기 32.0%에서 올해 상반기 37.9%로 커졌다.

최석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며 "취약 업종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현영기자 hix ysl@

"주택시장 회복모드 건설주 상승은 일러"

금융가 사람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 주택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걸은 건설업종 주가도 반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사진)은 지난 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복이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철저히 회복 지원에서 접근해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이상 2005~2007년과 같은 폭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분양 물량을 확대해 건설사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시장이 회복될 경우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미분양 등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부실을 덜 수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시장이 아닌 해외나 신사업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올해 일부 업체가 해외에서 얻은 부실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최근 시장·공종 등이 다변화되고 있어 또다시 이런 일이 재연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원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건설사들도 내실 있는 사업장을 선별 수주하는 안목이 생겼다"며 "해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내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면 그 이후에 주택 시장 회복과 맞물려 중견 건설사의 주식시장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척추건강 이색패션쇼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달리라웨딩에서 열린 런웨이 패션쇼에서 치료를 통해 척추관절 건강을 회복한 고객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20분대…남양주 '화도 효성해링턴'

3.3㎡당 700만원대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연내 종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에 공급 중인 '화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전체 635가구로 이뤄졌으며 전 세대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지구 내 초등학교 2곳이 신설되고, 마트와 병원, 학원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를 이용해 강동권 15분대, 잠실권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복선전철역 마석역을 통해서도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선착순 발코니 확장비 특별 조건 등이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평내호평역 맞은편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2015년 8월 입주 예정.

문의 1588-7046 /박선옥기자

"中 화웨이 장비 보안문제 없다"

이상철 LGU+ 부회장 "도입땐 삼성 박수칠 일"

"화웨이가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삼성이 중국에 다가가기 쉬워졌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데 대해 삼성은 뒤에서 박수쳐야 한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통신장비를 채택하면서 불거진 보안 문제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는 사실 다 끝난 문제인데 미국 상원의원이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라면 할 말이 없지만 보안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 장비가 이미 7~8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들어와 있고, KT나 SK텔레콤도 화웨이 유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LG유플러스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보안 문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보안과 관련한 인증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받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인증 기관을 통한 화웨이 장비 보안 인증 획득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지국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채택한 것이 LG디스플레이, LG화학에서 부품을 화웨이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화웨이를 택한 것은 아니다"며 "화웨이를 선택한 것은 올해 소형 기지국인 리모트라디오헤드(RRH)를 100만대나 판매하는 등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선 데 있다. 장비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부분은 최고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웨이는 LG유플러스 및 국내 공인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장비의 소프트웨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는 국제 보안 인증기관 실험실 환경에서 장비 안증에 필요한 기술적 소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요일제특약 가입땐 車 보험료 8.7% ↓

편순이 주부 경제학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가운데 보험료 역시 만만치 않다. 보험료 등 이것저것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매달 꼬박꼬박 잘도 나가는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주행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로 길지 않다면 주행거리 연동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13%까지 저렴하게 낼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보다 보험료를 약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블랙박스도 보험료 절약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블랙박스만 장착해도 전체 보험료의 3~5%나 할인받는다. 보험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3~5% 정도 깎아준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가량 할인이 된다. '조심 운전'은 본인의 안전과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지름길이다.

/김민지기자 minji@

통영산 방어회가 9900원 2일 롯데마트 ...점에서 모델들이 경남 통영산 방어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까지 방어회(240g) 1팩을 시세보다 50% 정도 싼 9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1980.41 (-4.36)	501.32 (변동없음)

금리	환율
3.01 (-0.01)	1058.00 (-1.50)

뉴스 & 뉴스

LH 임대주택 착공 최대치

●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LH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연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해 올해 총 4만5000가구(예정 물량 포함)의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착공 물량 5만4000가구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3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1만1000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 순이다.

한편 올해 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총 2만7000가구로 전체 4만5000가구의 60%를 기록했다. 역시 연초에 수립한 임대주택 준공 목표를 달성했다. /박선옥기자

한화 테크노 컨퍼런스 열려

● 한화(대표 심경섭)가 사내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에 나섰다. 한화는 지난 6일 오후 대전 소재 종합연구소에서 사내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낸 기술 인력의 공로 치하와 엔지니어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2013 한화 테크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수상자 가족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심경섭 대표는 "이번 행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가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R&D)과 핵심 기술에 대해 열망을 담아 준비한 것"이라며 "10년, 20년 후 회사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균기자

국내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면제

정부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가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보조금 지원 확대, 인력·입지·연구개발(R&D) 분야 지원 및 해외 청산 등 유치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국내 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 융자 한도를 현재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동R&D센터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한다.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신규 부지 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 유턴은 수요 맞춤형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줄 계획이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균기자 kwak@

로또복권 제57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8	20	30	33	34	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65,267,8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3,346,678
3등	5개 숫자 일치	1,522,64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손목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2-2800
독자센터 02)721-9865

2005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98

미성년 모바일게임 결제피해 급증

올 10월까지 300건 달해
66% 자지… 평균 30만원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고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230만원, 평균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은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 170억원 물어내라"

애플 특허권 분쟁 소송비용 청구소송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1600만 달러(한화 약 170억원)를 물어내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전자와 특허권 분쟁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애플이 청구한 비용은 특허권 소송에서 발생한 자사 변호사 수임료 1570만 달러 등이다.

애플은 이번 청구 비용이 앞서 지출했거나 향후 사용될 소송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변호사 선임에만 6000만 달러(한화 약 635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과 애플 특허권 전쟁의 최대 승리자는 수임료 돈방석에 오른 변호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법원 심리는 내년 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illegible]기자

'유클라우드 TV 앨범' 이벤트

KT는 31일까지 'TV앨범 매일 출석하고! 매일 선물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유클라우드 TV앨범 이벤트 페이지 출석만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 'WB 150F'를 매일 2대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 중 20일 이상 출석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 'MV 900' 5대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TV앨범을 설명한 웹툰을 본 후 애플 맥북에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등자 세트 등 원하는 선물을 선택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해당 선물을 증정한다. /[illegible]기자

주억의 레고 장난감 접목 아이폰… 복고 디자인 적용한 클래식 오디오…

IT, 아날로그와 통하다

IT업계에 '디지로그'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난 디지털 서비스·제품을 일컫는다. 특히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등의 복고 열풍과 성탄절 시즌에 힘입어 디지로그 신제품 출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다국적 IT 액세서리 기업 벨킨은 레고 장난감을 접목한 아이폰 액세서리 케이스(사진 오른쪽)를 지난 5월 국내 출시했다. 벨킨과 레고 기업과 첫 정식 제휴한 이 제품은 케이스 앞면을 레고 판으로 만들어 실제 레고 블록을 끼워 장난감처럼 즐길 수 있게 디자인했다. 미국에서는 성인들의 추억 속 레고 놀이를 떠올리게 하는 IT 아이템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 LG전자는 클래식 빔, 클래식 오디오 등 '레트로(retro·복고)'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즉석사진 현상 카메라는 대표적인 디지로그 시장이다. 디지털 카메라 보편화로 필름 카메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즉석카메라는 아날로그 특유의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진화를 거듭 중이다. 한국후지필름은 최근 인스탁스 미니90'(왼쪽)을 출시하는 등 30여 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 관계자는 "인스탁스의 세계시장 평균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약 33%로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 30%와 비슷하다"면서 "알록달록한 색상과 가죽 질감, 판매 채널은 서점과 음반 매장 등으로 넓혀 디지털 카메라에 없는 '감성 강조'가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청정·가습·제균 한번에 (주)서울시 마포구 [illegible] 소재 LG베스트샵 [illegible]을 찾은 고객들이 LG 가습공기청정기 등 에어솔루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

한국과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illegible] 중국 공업신식화부 차관과 '제1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주요 ICT 정책 및 현황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 보호 ▲네트워크 주소 자원 관리 ▲전사적 보·소프트웨어 분야 의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련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신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illegible]기자

당신의 쓰린 속 달래드립니다

유통업계 연말맞이 숙취해소음료 지원 등 이벤트

1년 중 가장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유통업계의 연말 이벤트가 한창이다. 연말 하면 빠질 수 없는 술로 인한 숙취 걱정을 덜어주는 이벤트에서부터 회식비 지원, 대리운전비 지원 등 다양한 연말 모임 지원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들의 건전한 회식 문화를 지원하는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하는 상쾌한 송년회'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매주 화~금요일까지 4일에 거쳐 서울 주요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역, 광화문역, 강남역 등에서 마련된다. 출근 시간에는 숙취해소음료 '술깨는비밀'을 증정하고 본격적으로 회식이 시작되는 퇴근 시간에는 '술깨는비밀'과 '하이트제로0.00'을 비롯해 3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 등을 제공한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트제로0.00이 회식비를 쏜다' 2탄을 열고 있다. 17일까지 매주 회식팀을 선정해 20만원씩의 회식비를 지원한다.

송년회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달부터 대리운전비를 지원하는 '광동 힘찬하루 헛개차' 병뚜껑 대리운전비 지원'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구매한 광동 힘찬하루 헛개차 병뚜껑 안쪽에 1등·2등·3등 당첨 글자를 확인하고, 당첨 글자가 있는 병뚜껑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1등 10명에게는 대리운전비 150만원, 2등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3등 당첨자 3000명에게는 헛개차 1박스를 증정한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오는 20일까지 연말 모임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겨울 한정 메뉴인 박스테이크 커플 메뉴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패밀리 메뉴와 파티 메뉴를 각각 25%, 2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또 3명 이상 방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진 왼쪽부터 [illegible] 술깨는비밀, 광동제약의 힘찬하루 헛개차,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연말 모임지원 이벤트

/정혜인기자 jmw@metroseoul.co.kr

야외 댄스뮤직 페스티벌 개최

싱가포르 관광청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클럽 주크에서 야외 댄스뮤직 페스티벌 '주크 아웃'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주크 아웃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네덜란드 트랜스 슈퍼스타 페리 코스틴과 자세디 DT로 손꼽히는 대니 에일리, 하우스 트랜스 장르의 유명 DJ이자 프로듀서인 셋 트룩슬러 등이 참여한다.

/유제범기자 [illegible]

스타벅스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7일 오후 지난해 12월 재능기부를 통해 리뉴얼한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호점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소재 '카페 이스탄 에서 재가정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후 이석구(왼쪽 다섯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바리스타 50여 명이 복지관 관계자 및 올타리 봉사회 어머니 등과 함께 6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서대문구 인근 독 님가정 일대 독거노인 및 결손 가정에 전달하는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설 특수를 잡아라

대형마트 예년보다 빨리 사전예약 판매 돌입

일부 유통업계가 불황 타계의 방안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설날 예약 판매 돌입'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이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체 대량 구매 소비자에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해 한 발 먼저 명절 특수 잡기에 나섰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 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이는 작년 설날 사전 예약보다 22일이나 빠른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사전 예약 판매 조기 실시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겐 명절 분위기를 일으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기업체 등 대량 구매 소비자에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불황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또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예약 판매 품목도 지난해 설 69개에서 한우·배·굴비 등 신선식품 29종과 커피·햄·포도씨유 등 가공식품 50종, 샴푸·치약 등 일상 생활용품 24종 등 총 103개로 전년 대비 51%가량 늘렸다.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체 대량 구매 소비자에게 판매를 집중해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체 지갑 열기' 총력전도 펼치고 있다.

먼저 기업체 소비자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지난해 설에 사용 가능하던 4개 카드사 신용카드를 8개로 확대했다. 구매 혜택도 늘려 신용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동일 품목 5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롯데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이번 설을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설 명절 대량 구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점포 및 점포 총괄 부서, 본사 근무 인력 등 총 250여 명의 구성원들은 롯데마트와 거래가 있던 2만5000여 개 기업체를 타깃 고객으로 삼고 '개별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업체가 원하는 선물 품목 및 혜택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신선·가공·생활용품 MD(상품기획자)를 태스크포스팀에 함께 배속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울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미세먼지 공포' 삼겹살 매출 3배↑

중금속 배출 촉진 등 이유 생수 판매도 크게 늘어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수 등 오염물질과 중금속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식품은 물론 관련 용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돈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150여t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겹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5%나 증가했으며, 목심 307%, 갈비 78%, 앞다릿살 107% 등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생수 매출도 전년보다 29% 뛰었다. 황사 마스크·구강청정제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의 매출은 각각 344%와 32% 늘었다.

홈플러스 축산팀 강형석 바이어는 "돈육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호흡기의 계에 쌓인 미세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구매 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심장 뛰는 곰인형 안으면 가슴 '콩닥콩닥'

서울 4개 메리어트 호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하트베어 캠페인' 12일엔 나눔 콘서트도

지난 1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 로비에는 수백 개의 하트베어로 장식된 4.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졌다.

"하트베어를 품에 안으니 두근두근 심장이 뛰네요. 심장박동에서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져요.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나눔으로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날 트리 설치에 참여한 JW메리어트 호텔 강소영 홍보실 팀장의 소감이다.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과 서울 소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소속의 4개 호텔(JW 메리어트 서울, 르네상스 서울 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이 '메리어트 하트베어와 사랑을 전하다' 캠페인을 통해 국내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각 호텔의 '윈터 패키지'와 '크리스마스 패키지'에 각 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하트베어를 포함하고 후원금은 모두 하트하트재단에 기부된다. 호텔 내 델리나 프런트를 통해 후원에 참여하는 고객들은 금액에 따라 하트베어를 선물받게 된다.

◆후원 고객에게 하트베어 선물

오는 12일에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하트금관앙상블'이 징글벨 메들리 등을 미니 콘서트로 연주한다.

'나눔트리'는 연말 송년 나눔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제일모직, 김안과병원, 에이티넘파트너스 등 여러 기업의 임직원 참여로 나눔트리가 설치됐다. 두 번째로 나눔트리를 설치한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정영숙 팀장은 "나눔트리로 더욱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올해도 참여했다"며 "곰인형이라는 친근한 아이템과 트리로 좀 더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연말 송년 나눔'은 나눔트리 외에도 하트베어를 통해 기업 및 단체가 나눔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하트하트재단을 통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안으면 느껴지는 '심장 뛰는 하트베어'의 힘 있는 박동처럼, 캠페인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특히 재단 홍보대사 배우 소이현과 박하선뿐만 아니라 미쓰에이 수지가 자신의 트위터에 하트베어와 함께한 셀카로 후원 참여를 독려하고, 샤이니 최민호의 팬페이지 회원들이 하트베어를 통해 심장병 아동 수술비를 후원하는 등 셀러브리티들의 선행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특별 재단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심장 뛰는 하트베어'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많은 나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심장박동기가 왼쪽 가슴에 들어있어 품에 안으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하트베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트하트재단 나눔홍보부 손은경 총괄팀장은 "나눔 마스코트인 하트베어를 통해 나눔에 대해 쉽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 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나눔트리를 비롯한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연말 송년 나눔'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재단 홈페이지(www.heart-heart.org)와 전화 문의(02-430-200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지희기자 ymahn@metroseoul.co.kr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 박하선

서울 JW메리어트호텔 로비에 불을 밝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가 전해줄 양초·립밤

한국얀센 '러브산타데이' 임직원·가족 50여명 참가 장학생에게 줄 선물 제작

한국얀센이 지난 7일 본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얀센과 함께하는 러브산타데이'를 열고 폴 얀센 장학금 장학생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폴 얀센 장학금은 얀센의 창립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얀센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얀센은 부모 중 1명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교감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으로 폴 얀센 장학금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얀센은 장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단의 일대일 멘토링, 임직원들의 북멘토링 등을 통해 심리적인 지료와 후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한국얀센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은 수제 양초와 립밤, 비누를 직접 만들었다. 또 장학생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도 동봉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제작했다.

영업부 신입사원 박성우(25)씨는 "입사 후 장학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다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제약회사에서 관련된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척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 역시 "한국얀센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 신조로 갖고 있을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을 보듬고 돌보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제표기자 hong38@

트레킹·캠핑·스파·라이브공연 한번에!

제주신라호텔 '트램핑 상품' '일석사조' 겨울여행에 제격

제주신라호텔이 초보 캠퍼들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여행 트램핑 상품들을 내놨다. 트램핑(Tramping)은 트레킹(Trekking)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

제주신라호텔의 트램핑은 오전 제주신라호텔 레저 전문직원인 GAO(Guest Activity Organizer)의 안내로 오름 트레킹, 올레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해 제주의 겨울 자연을 즐길 수 있다. 호텔에서 트레킹화·스틱·배낭 등을 대여할 수 있어 트레킹 준비를 못 했어도 문제 없다.

2시간 정도 트레킹 후 완벽하게 세팅된 텐트들이 펼쳐지고, 호텔 주방장들이 제주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캠핑 요리를 준비하며 트램퍼들을 기다리고 있다.

트램핑장에 도착하면 제주산 감귤과 허브로 맛을 낸 따뜻한 와인으로 추위로 긴장된 몸을 풀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글루바인이 제공된다. 이어 신라호텔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정통 프랑스식 어니언 수프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단호박 영양밥, 제주산 흑돼지, 주방장이 직접 만든 홈메이드 소시지의 닭 요리, 각종 채소를 연잎과 소금어람에 쌓아 오븐에 구운 서프라이즈 건강 메뉴가 등장한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시지젼 야외 온수풀과 뜨끈한 자쿠지에서 문라이트 스위밍과 스파를 즐기고 야외 풀사이드에 마련된 핀란드 사우나에서 이국적인 제주의 밤을 감상할 수 있다.

윈터 트램핑 패키지(A타입, B타입 중 택 1)에는 본관 스탠다드 객실, 와인 파티 2인 입장권, 야외 온수풀&자쿠지 무료 이용,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2인 조식, 윈터 트레킹 2인이 포함된다.

B타입 선택 시에는 숲 속에 마련된 캠핑 런치 2인이 추가로 포함된다. 패키지 가격은 A타입 1박에 33만원부터, B타입 1박에 43만원부터(세금 봉사료 별도, 2인 기준). 예약 1588-1142.

/김재홍기자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버려지는 생명을 아시나요?

수산시장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두툽상어의 알

부산아쿠아리움의 보살핌을 통해
소중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소중한 생명이 처음 바다를 만나러 갑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12월 10일 해운대에서 150마리의 두툽상어가 방류됩니다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 생물의 **번식**, **구조**,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ar~ 스타일·연비·정숙 3박자 갖췄네

심이데이 차차차

■ 르노삼성 QM3

6일 국내 언론에 공개된 QM3는 르노삼성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경기도 동탄시를 오가는 시승회에서 많은 기자들은 이 차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시승에서 기자는 연비 테스트가 이뤄지는 서울~동탄 구간을 맡았다. 1.5ℓ 디젤 엔진을 얹은 QM3는 최고 출력 90마력, 최대 토크 22.4kg·m를 나타낸다. QM3와 비교적 유사한 콘셉트의 현대 i30 1.6 디젤은 최고 출력 128마력, 최대 토크 26.5kg·m의 성능을 지녔다. 또 다른 경쟁차인 폭스바겐 골프 1.6은 105마력, 25.5kg·m를 나타낸다.

이러한 제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 주행에서 보여주는 가속감과 연비, 정숙성이다. QM3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놀라운 정숙성이다. 앞서 언급한 i30나 골프에 비해 조용하고, 특히 공회전 때 스티어링 휠에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다. 미리 말을 하지 않는다면 가솔린차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이 차에 장착된 독일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은 SM5 TCE에서 궁합을 이뤄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더한 DCT는 변속의 부드러움이 돋보인다. 폭스바겐 골프의 DSG는 저속에서 약간의 울컥거림이 느껴지는 반면에 QM3는 자동변속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끄럽다.

이런 강점은 좋은 연비를 내는 데도 유리하다. 이날 기자가 기록한 연비는 28.0km/ℓ로, QM3의 복합 연비 18.5km/ℓ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연비 20.6km/ℓ를 훌쩍 뛰어넘었다. 29.9km/ℓ에서 더 이상 연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1위 참가자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었다. 또한 기자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1위를 기록했던 26.5km/ℓ보다도 좋은 연비다.

서울로 복귀하는 구간에서는 승차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 스트럿, 뒤 토션빔 타입을 적용한 서스펜션은 중형급의 안락함이 돋보였다. 205/55R17 사이즈의 타이어는 금호 제품으로, 회전저항 4등급이다. 회전저항이 좀 더 좋은 타이어였다면 연비가 더 좋게 나왔을 것이다.

QM3의 가격은 SE 2250만원, LE 2350만원, RE 2450만원으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최고급 모델인 RE는 오렌지 컬러 루프나 투톤 대칭이 적용된 꽃무선 모델이다. 반면 현대 i30 나설 모델의 최고급형은 2330만원인데, 여기에 컴포트 패키지(60만원), 컨비니언스 패키지(55만원), 멀티미디어 패키지(90만원), 파노라마 선루프(85만원), 하이패스 시스템(25만원)은 별도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모두 고르면 가격은 2645만원이 된다.

르노삼성 QM3 한 줄 평가

개성 있는 스타일, 뛰어난 연비가 돋보인다. 대기 물량 해소가 관건이다.

평점 ★★★★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4가지 독특한 인테리어… 부드러운 변속감
공회전때 진동 거의 없어… ℓ당 28km 달려

QM3의 매력은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연비, 동급 최고의 정숙성으로 요약된다. 4가지의 독특한 인테리어 컬러와 활용도 높은 뒷좌석 슬라이딩 시트, 서랍식의 매직 드로어 글로브 박스, 탈착식 시트커버도 QM3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QM3는 르노의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입된다. 그렇다면 이 차는 국산차일까, 수입차일까?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인 박동훈 부사장은 "수입된 차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순간부터는 르노삼성이 판매하는 국산차로 봐달라"고 했다. 수입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서비스센터에다 QM5 대비 85% 수준으로 책정된 부품 가격 등으로 국산차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연 초기 물량 1000대가 7분 만에 완판된 QM3는 르노삼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년 3월 본격 판매에 들어가기 전 이탈 고객을 막는 것이 르노삼성에 주어진 과제다.

/정식기자 terrad5@metroseoul.co.kr

벤츠 뉴 S클래스 판매 3일 동안 무려 300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1월 27일 국내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 뉴 S클래스가 3일 동안 300대(KAIDA 11월 신규 등록 대수 기준)나 판매되며 럭셔리 세그먼트의 리더임을 입증했다.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되어 새롭게 선보인 뉴 S클래스는 11월 4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해 출시일에 이미 3000여 대를 기록했으며, 11월27일 공식 출시 후 29일까지 3일 동안 3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올 들어 대형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은 월별 판매량이다.

뉴 S클래스는 지난 7월 글로벌 시장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만 대 이상 계약됐고, 11월 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의 고객이 뉴 S클래스를 인도받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

<럭셔리 대형 세단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제네시스	2 380	2 550	3 000	3 500	4 230
	에쿠스	3 600	3 820	4 400	5 270	8 310
기아	오피러스	1 820	1 950	2 160	2 290	
	K9				4 520	4 710
쌍용	뉴 체어맨			3 630	4 440	5 360
벤츠	뉴S-클래스	6 300	6 930	8 600	9 670	
	뉴E-클래스	3 700	3 990	4 360	5 010	5 540
BMW	뉴7시리즈	5 450	6 350	7 230	8 450	9 420
	뉴5시리즈		3 810	4 180	4 710	5 290
아우디	뉴A6			4 050	4 880	5 500
렉서스	LS	3 670	5 180	5 96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토스카·티구안·골프 등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GM, BMW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의 토스카 2.0 LPG(1만4261대)는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의 전기배선 단선 또는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 작동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 배선 정비 또는 개선된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티구안 2.0 TSI 3571대는 전조등 퓨즈가 단선되어 전조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및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발견됐다. 또한 골프 1.4 TSI 등 5차종 198대에서는 변속기 오일에 생성되는 점전물로 인해 변속기 내의 퓨즈가 단선되어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퓨즈 또는 변속기 오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의 이륜자동차 'BMW K 1600 GT', 'BMW K 1600 GTL' 165대에서는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BMW 코리아 이륜자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며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쉐보레 유럽시장서 철수

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키로 했다.

GM은 "2016년부터 유럽지역 대중차 시장에서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쉐보레 브랜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 구조와 유럽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서유럽 및 동유럽 시장에서 더 이상 GM의 주력 브랜드로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쉐보레는 콜벳과 같은 모델들은 서유럽 및 동유럽 시장에 계속 공급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 CIS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metro entertainment

"내 안의 도전의식 깨워준 작품"

뮤지컬 '디셈버' 주인공 김준수

뮤지컬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모차르트' 등을 통해 티켓 파워 1위의 뮤지컬배우로 자리잡은 JYJ 김준수(26)가 창작 뮤지컬로 돌아왔다. 고 김광석의 히트곡으로 만들어진 '디셈버'(16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하는 그는 "올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창작극 컴백 2011년에 선보인 '천국의 눈물' 후 2년 반 만의 창작극이다. 전에 인기상을 받을 당시(JYJ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게 정말 감사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창작극에 한 번 더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처럼 행동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 내 안에서 도전 의식도 꿈틀됐다.

고 김광석 김광석 선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음악과 가사를 쓸 수 있는지 감탄한다. 김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음악만으로라도 알고 싶었고, 그의 미발표곡을 처음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에 끌렸다.

생애 첫 연기 주크박스 뮤지컬이라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성스루(노래로만 구성된 뮤지컬) 형식의 뮤지컬처럼 노래 위주일 줄 알았다. 나중에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인 것을 알고 사실 많이 당황했다. 연기도 처음인 데다 대사량까지 많아 걱정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연기를 배워 뮤지컬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동참했다.

장진 감독 연출자인 장진 감독님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함께하는 배우들에게 의지하면서 배우고 있다. 감독님이 스스로 자신이 연기를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정말 시범을 보여주면서 웬만한 배우 이상으로 연기를 잘해서 놀랐다.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노래와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다른 뮤지컬배우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

대학생 첫사랑에 빠진 순수한 대학생 지우 역을 맡았다. 1992년 대학생 시절부터 공연연출가가 돼 20대 추억을 회상하는 40대까지 연기한다. 극중과 같은 낭만적인 학창 시절은 겪지 못했지만 오히려 생소해서 재미있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의새거나 소박한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다.

건강관리 공연 중에는 긴장해서인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편인데 끝날 때마다 일주일간은 많이 아프다. 이번엔 전작인 '모차르트'나 '엘리자벳'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커서 더 많이 아픈 것 같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서 게임하는 것이다. 이때가 유일하게 평범한 삶을 느끼는 순간이다. 술을 거의 못 해서 밖에 나가 놀 수가 없다.

뮤지컬 4년차 가수 활동을 하는 것도 행복한데 공연 때마다 좌석을 꽉꽉 채워줘서 감사하다.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진출 초기엔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엘리자벳'에서 죽음 역을 맡는다고 할 때도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성기 내 열정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가수는 그만둘지라도 뮤지컬은 계속하고 싶다. 인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지금까지만도 충분히 감사하다. 보통 뮤지컬배우의 전성기는 30~40대라고 한다. 앞으로 더 배우고 사랑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또 JYJ로 배와 무대에 설 때마다 뮤지컬배우로서도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박어서도 사랑받는다면 뿌듯할 것 같다.

/박은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이은지

star bag

임신 13주 – 내년 6월 엄마

가수 장윤정이 엄마가 된다.

장윤정은 임신 13주째로 내년 6월 출산 예정이라고 소속사가 7일 밝혔다. 그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 가수의 방송 활동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선배 가수 남진과의 콘서트에서 남진이 장윤정에게 공개적으로 축하를 건네면서 알려졌다. 장윤정은 6월 도경완 KBS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순수 매력 농촌아이들 화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3'의 참가가 농촌아이들이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17세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이들은 1일 방송된 2회에서 꾸밈 없는 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무대 영상은 8일 오전 유튜브와 네이버TV캐스트에서 각각 72만 건과 46만 건 총 118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히든싱어·불후의 명곡 우승

가수 휘성이 JTBC '히든싱어 2'와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우승을 싹쓸이했다.

그는 7일 밤 방송된 '히든싱어 2'에서 자신의 히트곡 '위드 미' '안 되나요' '기승 시린 이야기'를 부르며 쟁쟁한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친 결과 우승했다. 같은 날 방영된 '불후의 명곡'에서도 1962년 발표된 현미의 '밤안개'를 재해석한 무대로 1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방송 후 휘성의 과거 히트곡들이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재진입했다.

일렉 사운드로 관객 잡아

혼성 3인조 클래지콰이가 '그린플러그드 레드 2013'에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7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50여 분 동안 3집 수록곡 '생의 한가운데'와 히트곡 '러버 보이' '필 디스 나잇' 등을 불렀다. 보컬 알렉스와 호란은 연신 무대를 뛰어다니며 추운 겨울 페스티벌을 즐기러 온 관객들에게 화답했으며 DJ 클래지는 귀를 자극하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연출했다.

복고 입은 티아라 화려한 컴백

타이틀곡 '나 어떡해' 선봬 "안무는 뮤지컬 보는 듯"

걸그룹 티아라(사진)가 중독성 강한 복고 코드를 덧입혀 화려하게 컴백했다.

'복고 퀸'으로 돌아온 티아라는 최근 음악 방송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패키지 앨범 '어게인 1977'의 타이틀곡 '나 어떡해'는 멤버들의 천연덕스러운 표정 연기와 뮤지컬 안무 포인트가 눈길을 끈다.

6일 KBS2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만난 효민은 "'나 어떡해'는 당시 대중에게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샘플링보다는 우리에게 맞게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며 "안무도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뮤지컬 안무 구성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의상을 통일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2009년 데뷔 때 어느덧 7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티아라는 주로 봄과 가을에 새로운 앨범을 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겨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소연은 "10월 '넘버나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앨범 무대 의상과 콘셉트를 준비했다. 이 때문에 컴백 시기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기를 늦추면 아깝고 당기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결정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국내 무대는 물론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티아라가 중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곡은 발표와 함께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에서 한국 가수 중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지연은 "중국에서 불러주면 갈 거다 (웃음) 21일 광저우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티아라 소속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고 중국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어떡해'는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나 어떡해'를 샘플링해 재탄생한 곡이다.

/신원준기자 ywsh@metroseoul.co.kr

●시트콤급 며느리 오디션 ●남편 시험하려 납치 자작극

황당한 '왕가네 식구들'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MBC '오로라공주' 못지않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7일 방영된 29회는 최대세(이병준)가 자신의 아들 최상남(한주완)과 왕광박(이윤지·사진)의 결혼을 반대해 10여 명의 여성들을 놓고 며느리 오디션을 벌이는 모습 등 시트콤을 방불케 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또 고민에게 남지된 왕호박(이태란)이 심은 자신을 향한 남편 허세달(오만석)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는 '연어족' '캥거루족' '저월드 편에' '하빌지상주의' 삼포세대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가족 문제를 다루겠다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전개다.

시청자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너무 비현실적이라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 "개미 없어서 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본다" "알바생이 1회 본을 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배우들이 안쓰러울 정도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원성에 자자한데도 시청률은 여전히 높았다. 1일 자체 최고인 34.9%(닐슨코리아 전국 집계 기준)를 기록한 이 드라마는 7일 30.6%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주말극 1위로 독주를 이어갔다. '막장' 논란이 뜨거워질수록 시청률이 상승한 '오로라공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다.

/박진영기자 bit0427@

'아시아 대세 그룹' 엑소

中 음악 시상식 2관왕

초대형 신인 그룹 엑소(사진)가 국내에 이어 중국의 연말 음악 시상식에서도 정상에 섰다.

엑소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음악풍운방 신인성전 시상식에서 '2013 최고 그룹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활약한 엑소-M도 '2013 최고 인기 그룹상'을 차지했다.

음악풍운방 신인성전 시상식은 중국 유명 음악저트인 음악풍운방이 주최해 중국어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영향력 있는 음악 시상식이다.

엑소는 현지에서 높은 인기로 '최고 그룹상'을 수상했음은 물론,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엑소-M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최고 인기 그룹상'을 수상해 사실상 최고상을 석권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올여름 음원·음반 시장을 싹쓸이했던 엑소는 겨울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12월의 기적'으로 국내 9개 음원차트와 해외 6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suno@

공룡, 이보다 더 리얼할순 없다

3D영화 '다이노소어' 최근 10년 발견 토대로 세밀한 작업 | 울음소리 등 감정 메트릭스 사용

영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의 주인공 파치와 그의 단짝인 원시새 알렉스. 오른쪽은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룡 캐릭터들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가 웰메이드 에듀테인먼트 영화로 겨울 극장가에 주목받고 있다.

◆공룡에 대한 새로운 상식 녹아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는 포털사이트 네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같은 시기 개봉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제치고 38.0%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영화는 공룡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 명확해졌던 19세기 초부터 100여 년간 이어온 관련 연구를 뒤집는 최근 10년 간의 발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라 폭넓은 연령층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작진은 공룡이 살았던 세계를 진짜처럼 생생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저명한 고생물학자들과 긴밀하게 작업했으며 세밀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 연구와 조사를 거쳐 현존하는 공룡 영화 중 가장 사실성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에는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깃털이 있는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현재는 새로 진화해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또 부리 길이만 2.5m에 달하는 익룡이 사실은 공룡이 아니라 파충류였다는 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날렵하고 포악한 공룡으로 고르고사우루스가 있었다는 것, 이빨이 2000개나 되는 공룡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존재했다는 사실 등 공룡에 대한 새로운 상식들이 영화 속에 녹아있다.

영화의 자문을 맡은 고생물학자 스티븐 브루셋은 "스토리의 배경은 물론이고 주변 풍경, 동물들의 생활 모습까지 전부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함께 영화로 탄생시켰다"며 차원이 다른 공룡 영화를 예고했다.

◆파치의 위대한 리더 성장기 그려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는 7000만 년 전 알래스카의 작은 공룡 파치가 흉악한 거대 공룡들의 위협과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용감하게 살아남아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작진은 새와 포유류 등 여러 동물들의 생김새와 움직임, 울음소리 등을 관찰하고 분석해 '감정 메트릭스'라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이를 토대로 캐릭터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배우 이광수가 주인공 파치의 목소리를 연기했고 배한성을 비롯한 베테랑 성우들이 총출동해 완성도를 높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관절질환 및 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평소 손목 팔꿈치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고생하던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질환이 자주 재발돼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할 상태에 이르렀다. C씨는 수술이 두렵고 부담감도 있어 고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 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병원장은 C씨를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진단하고 강남초이스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해 투여했고 염증이 심한 인대와 신경을 치료했다. 치료를 받은 C씨의 상태도 호전됐다.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됐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의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C씨는 주사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와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치료를 마친 C씨는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이처럼 1차원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와 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 후 질환을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통해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운영 중이다. 조성태 병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명예와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해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2)875-2200 /황재용기자

국회의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극한적인 정쟁으로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던 국회가 모처럼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여야 간의 정쟁만 대립에서 고작 합의해낸 것은 국가정보원 개혁 합의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대선 관련 특검은 뒤로 미루고 우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시켜 예산안을 비롯해 그동안 미뤘던 민생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19대 국회 출범 당시만 해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 제일주의' '민생 제일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은 정치 혐오증만 키웠을 뿐이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질타마저 터져나왔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의 세비 삭감은 물론 세비 예수 자제를 국민에 정해줘야 한다는 여론마저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거의 모두 방치된 상태다. 오히려 법안 처리 기회를 놓쳐 반작용이 생길 정도다. 부동산 거래에 커다란 혼선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우에 따라 기업의 목을 조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새해 예산안만 해도 심도 있는 심의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국회의원은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10%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는 대다수 의원은 마이동풍이다.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막상 당선만 되면 유아독존의 자세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다. 마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만과 독선에 차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그렇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성의 수준을 넘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도 모자람이 없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북한의 동향도 매우 심상치 않다. 따라서 정치권은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국력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정쟁만 벌일 것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포토프리즘 중국발 미세먼지에 서울 시계제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서울의 거리는 황사용 마스크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일 서천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길을 재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그늘 만드는 기부

뉴스룸에서
정 영 일
<생활경제부 차장>

연말연시만 되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기부(寄附)'다.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영어에서도 이 같은 나눔과 베풂을 '기브(Give)'라고 표현한다.

과거에 '기부'란 단순하게 '현금과 현물 위주의 나눔'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눠 다른 이의 삶을 이롭게 하는 재능기부를 비롯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사용, 소비자나 회사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모으면 회사 차원에서 그 금액을 추가해 지원하는 '매칭펀드형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 기업들은 기부 활동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

지난 10월 말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381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 기부금은 1조8136억원으로 5년 전인 2008년 1조8385억원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이들 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로 인해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생색내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500대 기업의 기부금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부 기업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인색하다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 달 후인 11월 말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에서 이전에 비영리 민간단체 NPO,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을 조사하니 기부 형태가 62.5%, 직접 시행 형태는 37.5%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소외된 곳은 대기업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이다.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등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촛대 밑의 어둠' 현상이 나온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공치사(功致辭)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고르게 된 분배 그늘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길 기대해본다.

라틴어

인문의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베니 비디 비치(Veni, vidi vici)."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승자가 되면서 남긴 유명한 발언이다. "왔다, 보았다, 이겼노라."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지중해 세계는 이른바 '로마의 평화'라는 질서가 지배한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이어진다.

자아를 가리키는 '에고(Ego)'도 라틴어고 이 과정에서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후마니타스(humanitas)'가 조명을 받으면서 '인문학(humanities)'이 발전한다.

유럽이 프랑스, 독일 등 국민국가로 나뉘어 발전하게 되는 시기 전까지는 라틴어가 무려 2000년간이나 공통 언어의 문자로 군림했다. 라틴어를 모르면 유럽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1차대전을 전후로 하는 시기까지 유럽의 교육에서 라틴어는 우리의 한자처럼 필수 과목이었으나 로마제국은 5세기쯤 역사에서 사라졌어도 라틴어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막강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라틴어는 여기저기 출몰한다. '후마니타스'는 이미 인기 단어 목록에 들어있고 자동차 이름엔 '아반테(Avante)'나 '소나타(Sonata)', 외제차 '인피니티(Infiniti)'도 뜻도 잘 모르는 채 익숙해졌다.

서기를 뜻하는 AD도 'Anno Domini'라고 해서 '주의 해'라는 뜻인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아무 저항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국이 됐다. 프랑스어지만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배계급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다.

공화국 또는 공화정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리퍼블릭(republic)'의 라틴어 어원은 '레스 퓨블리카(res publica)'로 공공성을 가진 일들이라는 뜻이다. 즉 '공적(public)인 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와 국가가 바로 공화정이다. 그러나 단어는 존재하지만 그 단어의 정신은 찾기 어렵다. 요즘 인기 '있어 보이는' 라틴어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긴 역사나 철학 또는 의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혹시 만시에 이르지는 않을까? 깊이를 모색하는 문명에서만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사과같지 않은 사과

기자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주 '형광 비비'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클럽에 가기 전에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얼굴 전체가 형광으로 빛났다'는 글을 올리면서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일반적인 형광물질과는 무관한 성분으로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이고, 이미 형광 현상을 없앤 새 제품으로 리뉴얼해 판매하고 있다"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유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형광물질과 관련해 업체에 항의 전화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형광물질에 대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안일한 고객 서비스에 실망한 것이다. 한번 돌아서버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과문 하나로 돌릴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물건 팔기에 급급한 기업들의 경우 자칫 고객 서비스에 소홀하기 쉽다. 이 때문에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후 관리에 있어서 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탄탄한 제품력과 함께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덕목이다. 고객 중심 서비스는 당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요로 돌아오게 돼 있다. 기업들이 매출 올리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고객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홍명보 "러시아·알제리전에 승부수"

내년 브라질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오르려면 승점5 확보해야 안정권 ·1승 1무론 자력 진출 힘들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을 마친 축구대표팀이 2회 연속 16강 진출을 향한 전략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숙제는 승점 5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대회인 남아공 월드컵에서 1승1무1패(승점 4점)로 16강에 진출하는 행운을 얻기는 했지만, 4점은 자력 진출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똑같이 1승1무1패를 기록하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다.

16강을 위한 안정권에 들려면 최소 1승2무(승점 5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물론 한 팀이 3전 전패를 하고 나머지 팀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칠 경우 2승1패로 승점 6점을 따고도 탈락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난 대회 같은 조에 속했던 아르헨티나처럼 한 팀이 3승을 거둘 경우 낮은 승점으로도 16강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H조 톱 시드인 벨기에와 마지막에 붙는 것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벨기에가 첫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다면 한국전에서는 다음 경기를 위한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세 경기 가운데 알제리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기"라며 "전략적으로 볼 때 첫 두 경기에 승부를 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러시아·알제리 약점 뚜렷

첫 경기를 치르는 러시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본선에 오른 팀으로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다. 유럽 예선 조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본선에서 상대할 때 잉글랜드·프랑스·포르투갈 등 같은 포트의 유럽 강호들보다는 분명 수월한 상대다. 특히 세대 교체 시기를 맞아 전력이 하향세여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다른 유럽 팀보다 해볼 만하다.

월드컵 3회 출전국인 알제리는 한 차례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이 필승을 기대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토고(2-0 승·2006년), 나이지리아(2-2 무·2010년) 등 아프리카 팀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벨기에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는 등 메이저 대회와 큰 인연이 없었던 전력은 분명 한국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8일 홍명보 감독이 알제리전이 열리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 있는 베이라 히우 경기장을 사전 답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프로 데뷔 첫 승

2014 KLPGA 개막전 V

골프 신동 리디아 고(16·고보경)가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장식했다.

10월 프로로 전향한 리디아 고는 8일 대만 타이베이시 미라마르 골프장에서 열린 2014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스윙잉 스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11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리디아 고는 이날 3언더파 69타,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1위를 기록했다. 리디아 고는 전날 2라운드까지 유소연에게 1타 뒤진 8언더파 136타로 2위를 기록했지만 이날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유소연을 따돌렸다.

프로 전향 후 두 번째 대회에 출전한 리디아 고는 이로써 프로 데뷔 첫 승을 KLPGA 투어에서 기록하며 우승 상금 15만 달러(약 1억 6000만원)를 챙겼다.

반면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이븐파를 기록하며 합계 8언더파 208타로 리디아 고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챗난 선두였던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로 단독 3위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정성훈기자

리디아 고가 8일 프로 데뷔 첫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역시 '대인배 김연아'

'올림픽 리허설' 200점대 우승 · 아사다에 판정승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은 김연아(23)의 우세 속에 다시 한 번 아사다 마오(23)와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김연아는 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끝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새 프로그램을 공개해 명불허전의 기량을 뽐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아사다는 장소는 달랐지만 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13~201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쇼트 프로그램 73.37점에 프리스케이팅 131.12점을 더해 총점 204.49점을 기록했다. 아사다는 쇼트 프로그램 72.36점, 프리스케이팅 131.66점으로 합계 204.02점을 거뒀다.

두 선수의 점수 차는 0.47점 차로 김연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다. 경기 규모와 심판이 다르지만 같은 날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직접 맞서진 않았지만 김연아가 1인자다운 압도적 실력을 과시한 반면 아사다는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시도에 실패하며 목에 건 금메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성훈기자 yaw@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가 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갈라쇼를 마친 뒤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8일

동부	22	13	23	17	75
삼성	21	12	22	20	75
LG	15	17	18	18	68
SK	38	19	16	7	80
오리온스	16	25	18	25	84
모비스	16	20	20	18	74
우리은행	16	15	15	17	63
KDB생명	17	8	14	21	60

프로배구 전적 8일

우리카드	3	2	대한항공
한국전력	3	2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1	3	GS칼텍스
현대건설	1	3	기업은행

손흥민 결승골 · 시즌 7호

손세이셔널 손흥민(21·바이어 레버쿠젠)이 시즌 7호 골을 터트리며 킬러 본능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8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벌어진 도르트문트와의 2013~2014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전반 18분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승점 3점을 추가한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12승1무2패, 승점 37점으로 1위 바이에른 뮌헨(41점)과 승점차를 줄였다.

손흥민은 후반 37분 수비수 필립 볼샤이트와 교체됐다. /김성훈기자

1억5000만 달러 이상? 추신수 이번주 FA대박 가능성

미국프로야구 동급 자유계약선수(FA)들이 줄줄이 새 둥지를 찾으면서 추신수(31)의 대박 계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폭스스포츠는 8일 추신수를 "대형 FA 도미노 현상의 다음 순서"라고 표현하며 "제코비 엘즈버리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떠나 뉴욕 양키스에 입단할 때 받은 7년 최대 1억5300만 달러(약 1618억원)에 버금가는 계약을 끌어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시즌 FA 시장에서 엘즈버리·추신수와 함께 톱 3로 꼽힌 로빈슨 카노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10년간 2억4000만 달러(약 2539억원)에 계약한 것도 추신수의 대박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신수는 국내 귀국 직전이자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이 열리는 10~13일 전후로 새 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참 죄송한 마음

임경선의 모놀로그

여든두 번째 생신을 맞으신 할머니께서 밥 두 공기 뚝딱 드시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듣는 며느리는 더 이상 밥이 안 넘어간다. 자신이 환갑 나이의 며느리가 되어 노할머니를 모시는 미래를 상상해보니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시어른과 함께 사는 친구의 솔직한 토로에 들어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엿들은 양 뜨끔했던 이유는 나 역시도 그런 복잡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여든 넘어 첫 친손녀를 보시고선 감격에 겨워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걸 보고 죽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한 게 여언 6년 전. 이젠 현실로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생신 때는 스스로 대견해하시며 "어쩌면 중학교 입학하는 것까지 볼 지도 모르겠다"며 농담하시는데 순간 삶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집착이 느껴져 속이 화끈거렸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취약한 존재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되는 죄책감"이라고 친구는 말한다. 그러면서도 점점 이기적으로 자기 건강을 탐욕적으로 챙기는 어르신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자니 그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또 안 좋다. 노인은 살고 싶은 욕심은 크지만 삶에 대한 열정은 없다는 것도 그 건강 회지를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어르신들의 생일을 보내는지 궁금하다. 연말에 양가 어른들의 생일이 다 몰린 우리는 대개 식당에서 형제들이 식비를 분담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고기와 미역국이 있는 생일상을 차린다. 의식은 매번 같다. 식사 후 소극적인 생일축하 노래와 더불어 케이크의 촛불을 불고 자식들은 주섬주섬 봉투를 꺼낸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면 생일 축하카드가 등장할 것이다. 희한하다. 사이가 안 좋은 가족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매년 더 빨리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보든 의식에서 진심 어린 축하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생일을 축하하기보다는 어떤 생일은 '치른다'는 느낌이다. 속이 시커멓나만 그런 거라 믿고 싶다. 아니면 진정 장수란 축복 아닌 재앙인가. /칼럼니스트

날씨

12/9 月 일출시각 07:35 일몰시각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 수원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50세 이후 호흡곤란, 혈뇨, 심한 두통 등이 생기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9				2
							1	
	1	7		5		4		
	5		3				2	9
2					9	5		
	7		5				3	4
	2	4		6		9		
							5	
	3		1	2				7

1	7							
			5	3		1		
		3	8				9	
		7					5	
6		4		2		9		1
	2					6		
	6				2	5		
		1		8	9			
							2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 슈퍼스도쿠 마스터 (제임스 에디어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이혼후 13세 딸과 힘들게 살아 46세 지나면 경제적 여유 생겨

다빈이 여자 70년 12월 28일 오전 3시

Q 이혼한 뒤 열세 살짜리 딸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현 직장에서 버티어 할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직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재물운이나 애정운이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중년까지는 반음파산(反吟破産)이라 하여 인복이 없어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6세 이후부터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찾게 됩니다. 재복이 있어 기이한 발복이 따릅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침체개금(沈滯開金: 공간 자물쇠를 열어 줘)으로 부담이 없으므로 월급만 제대로 나온다면 현 직장을 꾸준히 다니십시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국하는 성향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너그럽게 베푸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착하고 인정이 많지만 약간의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화목이 어렵다고 봅니다. 당당한 상황이 당장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농협 붙은 남편 이직해야 하나 현 직장에서 사업 준비 꾸준히

올거는신에 여자 78년 4월 25일 양력 낮 12시 / 남자 77년 6월 2일 음력

Q 남편이 농협 시험에 뒤늦게 합격했습니다. 업무 강도가 세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들었습니다. 처우가 불안한 현 직장을 계속 다닐지, 농협으로 이직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A 남편은 많은 일을 벌여놔야 자신이 도맡아 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스트레스도 남보다 강하고 사주로는 갑목(甲木) 사주에서 자기의 생활권으로 흐르지 않고 있으므로 고단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 강시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했으니 본인의 마음이 첫째입니다만 직업운(職業)이 병사묘(病死墓: 병이 드는 상태)에 있으니 여의운은 아닙니다. 재물운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경제적인 여유는 있게 돼 있으므로 놓던 틀에서 지내는 것이 적합합니다. 목재 취급 업무나 부동산 계통과 인연이 있으므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독립하는 것도 성공의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게재하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9일 (음 11월 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알맹이 없는 말에 속지 마라. 60년생 보소한 일은 관철된다. 72년생 능력 밖의 일은 그림의 떡임을 명심. 84년생 신중하지 못한 행동 뒤에 문제 생긴다.

소 49년생 일상에 작은 변화 생긴다. 61년생 꼭 해야 할 일 아니면 미뤄라. 73년생 가뭄에 단비 내린 격이니. 85년생 위는 행동으로 상사에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

호랑이 50년생 사랑이 아니고 억측하지 마라. 62년생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은 격이다. 74년생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마라. 86년생 야망을 불태울 일이 생긴다.

토끼 51년생 빌명에 짝지 된다. 63년생 부하와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라. 75년생 팡 흘린 만큼 결과도 유성. 87년생 깜짝 소개팅 있을 수 있으니 헐근 복장 신경 써라.

용 52년생 과거의 명분은 무용지물. 64년생 털이 매끄럽은 대로 굴러 유쾌하다. 76년생 가족과 행복하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라. 88년생 떡을 복 떨어 값이 즐겁다.

뱀 53년생 개똥도 약에 쓰려니 없다. 65년생 귀중품 잃지 않도록 조심. 77년생 결과가 별어 묶은 기곤해도 마음은 가뿐. 89년생 경사 생겨날 벗이 있어 기쁨 두 배.

말 42년생 나이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라. 54년생 장고 끝에 악수 둔다. 66년생 과음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하라. 78년생 직장인은 중책을 맡아 어깨 무겁다.

양 43년생 먼 길 떠날 일이 생긴다. 55년생 친구를 도울 땐 표시 내지 마라. 67년생 기분 헐게 돈 쓸 일 생긴다. 79년생 괜한 독심 부려서 어려운 일 자초하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것. 56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얻는 게 많다. 68년생 준비가 미흡한 일은 서두르지 마라. 80년생 뜻하는 벗이 있어 든든.

닭 45년생 남을 도와준 보람을 느낀다. 57년생 웃을 일이 없더라도 표정 관리 잘하라. 69년생 모처럼 부부 동반 외출하니 즐겁다. 81년생 일명 웃고 사람은 이쁜기류.

개 46년생 심심할 정도로 무탈한 하루. 58년생 과감했다간 후회만 남게 된다. 70년생 옳은 일이라도 무작정 남을 따라하지 마라. 82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돼지 47년생 과거에 연연하면 더 큰 것 잃는다. 59년생 공돈이 생겨 즐거운 비명. 71년생 뜻이 강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83년생 동료와 하찮은 대립으로 찜찜한 하루.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